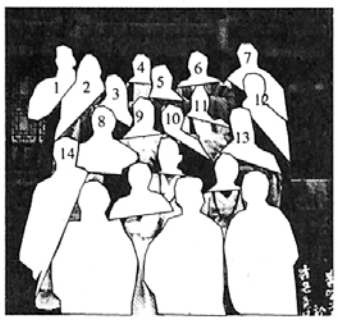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정성껏 가꿀때 복받습니다"

정진중 망상 없애려 하면
더 힘들어지니 내버려두고
화두에 몰두하면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운경스님의 젊은 시절 당시 불교계의 지도자 스님들이 봉선사에서 기념촬영했다. ①서옹 고불총림 방장 ③월하 조계종 종정 ⑤탄허 前 월정사조실(입적) ⑥영암 前 조계종 총무원장(입적) ⑨운경 봉선사 주지 ⑩운허 前 동국역경원장(입적) ⑪구산 前 조계총림 방장(입적) ⑫석주 칠보사 조실 ⑬고암 前 조계종 종정(입적)

"공부와 기도는 절대로 미루면 안됩니다"

분노·증오 멸하고 매사 자비심으로 대하길

무슨 특별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합니다. 기도는 우선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과 위신력이 온 누리에 넘치고 있는 것을 깊이 믿고 감사하며 일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사를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며 자비행을 펼치고 결코 분노나 증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불 보살님과 같은 원(願)을 세워 불보살님의 위신력이 함께 흐를수 있도록 아견과 교만과 삼독심을 멸하여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서는 참회가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참회할 때 모든 아집과 번뇌의 때와 장애의 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이러한 깨끗한 마음바탕 위에 일념삼매로 기도를 올릴 때 환희심도 생기고 신심이 확고해지고 따라서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는 고담스님 말씀을 듣는 즉시 강화 보문사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생동안 중노릇 잘하고 퇴속치 않게 해주고 부처님 진리를 잘 성취하게 해 달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삼칠일동안 정성을 다 했어요. 그 기도인연인지 큰 과오없이 지금껏 부처님도량에서 수도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인사가 큰 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인사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수원 용주사까지 걸어가서 하룻밤 자고 김천 직지사까지 갔어요. 거기서 청암사로 해서 해인사로 갔지요. 해인사 퇴설당 참선방에서 두해를 지냈지요. 강원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경 김용사 강원에서 경공부를 했지요. 치문으로부터 사집 사교 대교 공부를 했어요. 경을 다 배운 사람은 참선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참선부터 공부하라고 하지만 난 교종본찰로 알려진 봉선사와 인연을 맺어서인지 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선시불심 교시불어(禪是佛心 敎是佛語)'라 했습니다.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참선도 열심히 해야 하고 경도 부지런히 익혀 부처님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상 먼저 교를 알고 선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이치를 알아 그것이 든든한 밑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와 선을 자동차의 양 바퀴처럼 굴려야 합니다.

해인사 선방에서 두철을 지내고 대승사 수덕사 금강산 표훈사 유점사를 두루 다니며 운수행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점사에는 강원만 있고 선원이 없어 만공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선방을 내자고 공론이 되어 내가 공식 사찰공문을 들고 만공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마침 금강산을 둘러본 적이 없다 하시며 쾌히 승락을 하시어 여름안거후 유점사에 오셨습니다. 그때 모시고 수행을 한 것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때 큰스님들은 참선의 목적은 마음을 밝혀서 원래 맑고 밝은 자성의 본체를 깨달아 청정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며 부지런히 닦을 것을 자나깨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도 겪었듯 그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진중에는 온갖 망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망상이 생길때 망상을 없애겠다는 집착을 보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망상은 망상대로 내버려 두고 화두를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념이 다 생기지만 망상이 오거나 말거나 계속 화두에 몰두해야 합니다. 마치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거세게 쳐도 노를 잡은 뱃사공이 유능하면 제 갈길을 결국은 갈 수 있듯 화두를 잡은 마음이 확고해야 자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책상에는 〈보현행원품〉을 비롯 몇가지 경전이 늘 놓여 있습니다. 수시로 보며 독송하기 위해섭니다. 부처님 제자라면 불경을 하루에 한시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좌선을 할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순화됩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이 순화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기쁘고 편안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웃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고 세계가 화평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고 찡그린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치 않다고 보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고 봐야 합니다.

곧 설날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복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덕담들을 흔히 하지요. 나도 새해에 그러한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요새 어떤 불자들은 '복많이 지으십시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복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치(愚癡)를 다스리고 자비심으로 분노심을 다스리면 복은 저절로 찾아듭니다. 우리들 모두는 복전(福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다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면 온갖 작물이 자라듯 마음의 밭에 선행을 심으면 복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8복전을 가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샘을 파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일

△깊은 내가 있는 곳에 다리를 놓아서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일

△험한 길을 잘 닦아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봉양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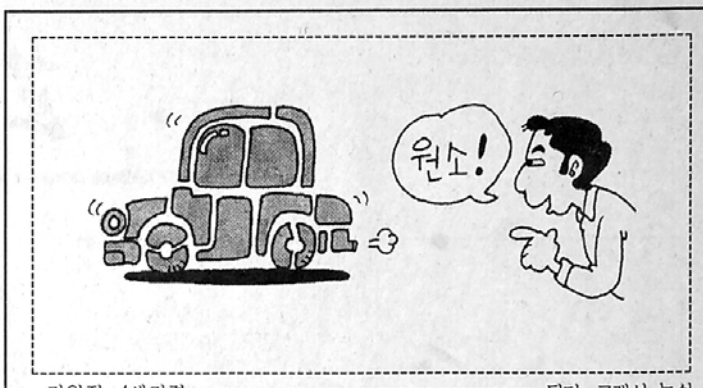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공경, 공양하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일

△법회를 열어서 누구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일

이중의 어떤 것이라도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깨우친 복, 깨달음을 얻어서, 짓고 받는 복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삼천대천세계에서 제일 큰 산인 수미산왕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이 경의 사구게 한구절만이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글을 줄줄 읽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본뜻을 확연히 깨닫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틔워주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복짓는 일을 많이 하십시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⑩②

박 순 달

4大와 原子 ④

원자설

산소·수소등 발견 4원소설 오류 판명

공기 원소아니라 질소등 원자 결합체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시대에서 4원소설이 정립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물질의 기본에 대해 일원론과 다원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기원전 4,5세기 데모크리토스는 일원론을 주장하면서 모든 물질은 원자(atom)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원자로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원자가 다른 특성을 가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아낙사고라스는 물질의 기본은 여러 개로 구성됐다는 다원론을 주장하고 우리감각이 인식할 수 있는 종류만큼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물질은 결국 분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분할 유한론과 한없이 분할할 수 있다는 무한론이 있었다. 데모크리토스는 분할유한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는 모든 물질은 원자이상 분할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물질은 끝없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서양에서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른다. 로마시대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번창하고 기독교 교리가 모든 것을 우선하여 자유로운 학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학설을 주장하여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판정되면 화형에 처해지곤 했다. 브루노의 화형, 갈릴레오의 사형선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13세기에 이르러 문예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과학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16세기에 이르면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6세기 헬몽은 4원소설에 있어서 불의 원소설을 반대했다. 물질이 불 속에 있으면 작열상태의 가스와 연기뿐이라는 사실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원소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더욱 확실해지는데 17세기 보일은 "내가 말하는 원소는 어떤 '원초적이고 단순한' 또는 '다른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섞이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그것은 완전한 화합물이라 일컫는 온갖 것들을 만드는 성분이며 화합물이란 결국 그 성분으로 분리되는 성분이다." 라고 했다. 예로 놋쇠는 구리와 아연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놋쇠는 원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공기가 원소일까? 18세기 영국 에딘바라대학 블랙교수는 석회석(탄산칼슘)을 태울 때 나오는 기체가 보통 공기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탄산가스(이산화탄소)였다. 석회수를 공기속에 노출하면 표면에 석회석 막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기중의 탄산가스가 석회수의 칼슘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17세기 슈탈은 물질이 타는 것은 타는 원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것을 플로지스톤(phlogiston)이라 불렀다. 물질이 탈 때는 플로지스톤이 나온다고 했다. 숯(탄소)은 완전히 타는데 이것은 플로지스톤을 가득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세기 프리스틀리는 1774년 8월1일 선물로 받은 볼록렌즈를 시험하는 도중 산화수은에다 이 볼록렌즈를 대고 태양을 쪼였더니 거기에서 어떤 기체가 나왔다. 그런데 이 기체를 모아 그 안에 촛불을 넣었더니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것을 마셔보았더니 폐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18세기에 들어와 근대 화학의 아버지이고 연소론을 정립한 라보아제가 이것을 산소라고 명명하고 타는 것도 물질이 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로써 타는 것은 물질속에 타는 물질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워싱톤포스트지가 작년에 과거 1000년동안 최대의 오류는 물질 속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불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카벤디쉬는 수소, 질소를 발견하면서 공기는 질소 79.16%, 산소 20.84%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한다. 1894년에는 공기 속에서 5개의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질소, 산소, 탄산가스, 수증기외 알곤, 헤리움,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의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공기가 원소가 아님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기원전 4세기부터 2천년 가까이 믿어오던 4원소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울대교수·산업공학과〉

案 포교지도자양성고시 內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며 포교사·법사는 불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사와 같습니다. 자아발견과 인간자각을 위해 하심과 인욕행을 배우며 지혜와 자비로 평화의 길·봉사의 길·해탈의 밝은 길을 밝히는데 눈과 손이 되어주시고 보살서원으로 정진하실 포교사·전법사·법사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시위원회

●증명 : 송서암(전 조계종 종정)
강석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김혜암(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안덕암(전 태고종 종정)
●고문 : 무진장스님, 성암도스님, 김태응스님, 김법혜스님 이외윤·김명윤
●총재 : 윤호석
●고시위원장 : 월운스님
●고시위원회 : 오형근·김영태·조용길
●집행위원장 : 성순경

고시문제

●포교사 응시자 - 불교학·불교사중에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50매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전법사 응시자 - 원시불교·소승(부파)불교·대승불교 가운데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논문 작성하여 제출
●법 사 응시자 - 원시불교학·삼론학·유식학·정토학·구사학·밀교·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 중에서 본인이 연구하고 관심있는 부분에서 150매 내외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처음 응시자는 포교사, 포교사는 전법사, 전법사는 법사로 응시함」

구비서류

1. 고시지원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복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진 4매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5. 호적등본 1부
6. 포교사자격자는 포교사증 사본 1부
(도장을 두군데 정확히 본인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료 : 50,000원 ※온라인번호 -주택은행 490701-94-200265〈예금주:(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자격 득 한후

- 합격자에 한하여 품계식거행
- 연수 및 분기별교육예정(사회 저명 교수 초청특강)

논문마감 1997年2月10日 18:00까지 제출

면접고사 1997年2月19日 14:00
(전형료 납부후 논문제출하여야 면접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장 소 불교방송국 3층 법당(마포구소재)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국여법사회
후 원 : 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법보신문·주간불교·대한불교

문의처 : 포교지도자양성고시위원회 총무처 ☎ (02)395-2571/2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60호 FAX(02)395-2574